2020년 (사)한국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학회 정기학술대회

프로바이오틱스의 새로운 도전
: 식품을 넘어 바이오 치료제까지

2020년 **11월 27일(금)** 09:00 - 24:00 | **e-Conference** (http://kslabp.g-conf.org)

초청 인사말

(사)한국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학회 회원 여러분!
'2020년 한국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학회 정기 학술대회'에 초청합니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어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과 재 유행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학회는 2020년 정기 학술대회를 온라인 e-Conference 형태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 바랍니다. 비록 예년처럼 회원 분들을 직접 모시고 학술발표나 토론을 펼치지는 못하지만 알찬 내용으로 학술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금번 2020년 정기 학술대회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새로운 도전: 식품을 넘어 바이오치료제까지"라는 주제로 11월 27일(금)에 e-Conference 형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연사 분들의 동영상 발표 자료는 e-Conference 홈페이지에 탑재할 예정이오니 회원 여러분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 편하신 시간에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e-Conference 참여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불편한 점이 많아졌지만, 이를 계기로 오히려 사회와 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한국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학회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자 합니다. 즉, 유산균과 프로바이오틱스의 전통적인 연구 방향과 산업적 적용에서 벗어나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정기 학술대회를 통해 이러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언제나 건강하시고 댁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사)한국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학회 회장 **박 훈**

Program

개회사

박훈((사)한국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학회 회장)

축사

강대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

세션 I. 장내 미생물

사람 장내에 존재하는 복합탄수화물 분해 미생물 및 이들의 분해 효소에 관한 연구	**정동현 박사**(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장내 바이러스체와 식품 바이러스체	**배진우 교수**(경희대학교)
상온에서 보존액이 담긴 분변을 이용한 메타지놈 분석 방법	**안용주 박사**(테라젠바이오)

세션 II. 프로바이오틱스 신 트랜드

프로바이오틱스 이니셔티브	**임광세 박사**(풀무원다논)
프로바이오틱스의 신트랜드: 박테리오파지 복합 제품	**김재원 박사**(CJ 제일제당)
유제품 안전을 위한 항생제 내성균의 이해	**송수연 교수**(전북대학교)

세션 III. 프로바이오틱스 바이오 치료제

김치에서 분리한 *Lactobacillus sakei*의 관절염 개선 효과	**권민성 박사**(세계김치연구소)
항염 활성 프로바이오틱 김치 종균 *Lactobacillus reuteri* EFEL	**한남수 교수**(충북대학교)
Lactobacillus johnsonii 사균체의 항비만 활성	**오세종 교수**(전남대학교)

등 록

금번 2020년도 정기 학술대회 등록비는 연회비 납부로 갈음하고자 하며, 신용카드 결제 및 계좌 송금이 가능합니다.

연회비 납부기한	11월 25일(수) 오후 6시까지
연회비	일반회원 50,000원 학생회원 20,000원
회비 납부 계좌	301-0205-7897-41(농협) / 한국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학회(예금주)
회원 가입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	**학회 홈페이지(www.kslabp.or.kr)**을 통해서 회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등록 및 결제'** 메뉴를 통해서 연회비 등록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전화 02-539-2800 이메일 kslabp@naver.com

e-Conference 입장 안내

연회비 납부자(학술대회 등록자)에게는 추후 **등록된 이메일을 통하여 e-Conference 입장 방법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